

## ▶ 아동

##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

김민희\* (가톨릭대학교 생활문화학과 박사과정)

문역준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최근 핵가족화와 같은 양육환경의 변화로 인해 젊은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이 부모에게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유아의 타고난 특성인 기질과 같은 요인은 어머니의 스트레스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인 유능성과도 연관이 되므로 유아의 특성인 기질과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특성인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서울, 안양, 부산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 6곳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유아의 기질은 Jewsuwan, Luster와 Kostelnik(1992)이 수정한 'Colorado Childhood Temperament Inventory(CCTI)'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Cr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LaFrenier와 Dumas(1996)의 사회적 유능성과 행동 평정(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 SCBE) 간편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주의집중, 진정성, 정서성, 활동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기질요인들로 나타나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유아의 기질과 사회적 적응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성과 활동성 기질이 불안-위축행동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분노 공격행동과 정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성이 낮고 비활동적인 유아들일수록 불안-위축적인 내면적 부적응 행동을 나타냈으며, 사회성이 높고 활동성이 높은 유아들일수록 분노-공격과 같은 외적인 부적응 행동을 많이 나타내어 낮은 사회적 능력을 보였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는 유아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긍정적-친사회적 행동과는 부적으로, 불안-위축 행동과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이러한 유아들의 특성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긍정적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하여 사회적 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불안-위축적 행동을 많이 하여 내적인 부적응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사회성 기질이 불안-위축 행동과 분노-공격 행동을 예측하였으며, 활동성 기질이 분노-공격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유아의 사회성, 활동성, 진정성 기질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상관이 있으며, 주의집중, 진정성, 정서성, 활동성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상관이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도전적인 유아 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유아들의 긍정적 친사회적 행동과 불안-위축 행동과 상관있는 요인이었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예측하는 요인으로는 사회성과 활동성 기질이였다.